

광주 금남지하상가 우수공예품 판매장 새단장

ECONOMY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공모전 수상작·오핸즈 인증제품·관광굿즈 한자리
80여㎡ 규모…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플랫폼 기대

광주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우수한 공예 상품들이 전시되고 판매되던 금남로 지하상가 내 ‘우수공예품 전시판매장’이 공간 재정비를 거쳐 새롭게 거듭난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우수공예품 전시 판매장이 새 단장을 마치고 시민과 관광객을 맞는다고 22일 밝혔다.

금남로 지하도 내 ‘광주 동구 서석로 지하 56, 금남지하상가 E동 52호’에 위치한

우수공예품 전시판매장은 지역 공예문화 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개발된 우수 공예품을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지역 공예인들의 매출 증대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공간이다.

79.49㎡ 규모의 전시판매장은 올해 3월 새 위·수탁 사업자 선정 이후 4~6월 동안 공간 정비를 거쳐 재개장을 준비했다. 단 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지역에서 생산된



광주 동구 금남로 지하상가 우수공예품 판매장

다양한 공예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 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핵심 판매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판매장에서는 지역 우수공예품 공모전 수상작, 오핸즈(O’HANDS) 인증제품, 스타공예상품, 광주시와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선정한 우수공예문화상품과 관광굿즈 등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수공예품이 전시·판매된다.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예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번에 입점되는 제품들 중에는 2023~2024년 오핸즈 브랜드 지정제품인 차곡차곡·무경 컵, 전통유물을 모티브로 한 연화차호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 2023~2024년 스타공예상품 한음채, 리사이클 립수주와 광주 대표 관광굿즈 광주 오월의향·이팝나무 비누 등 다양한 공예소품들

이 전시·판매될 예정이다.

금남로 지하상가 우수공예품 전시판매장은 김대중컨벤션센터 내 우수공예품 전시판매장과 함께 광주 공예문화 유통의 양대 축을 이루며, 도심과 관광지를 잇는 공예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금남로 지하상가 우수공예품 전시판매장은 단순한 판매공간을 넘어, 지역 공예문화 산업 육성과 작가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우 기자 sdw0918@gwangnam.co.kr

금호타이어, 미국 레이싱팀 후원

‘파이크스 피크 힐 클라임’ 대회…엑스타 V730 장착

금호타이어는 22일 (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에서 열리는 ‘제103회 파이크스 피크 인터내셔널 힐 클라임’(PPIHC) 대회에 참가하는 레이싱 팀을 공식 후원한다고 밝혔다.

1916년 시작한 파이크스 피크 힐 클라임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모터스포츠 대회다.

해발 2862m에서 경기를 시작해 4302m에 위치한 결승선까지 총길이 19.99km의 오르막 구간으로 이뤄져 ‘구름 위의 레이스’라고 불린다. 156개의 굴곡진 코너가 곳곳에 나타나 차량 성능과 타이어 내구성,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금호타이어는 소개했다.

금호타이어는 두 팀 세 명의 드라이버를 공식 후원한다. ‘아웨이다 레이싱 팀’ 소속의 덴 아웨이다, 트레버 아웨이다 선

수와 ‘스터링 모터스포츠’ 팀의 잭 펜리 선수는 금호타이어의 고성능 타이어 ‘엑스타 V730’을 장착한 차량으로 출전한다.

엑스타 V730은 국내외 다양한 모터스포츠 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초고성능 컴파운드와 견고한 블록 디자인으로 고속 주행 조건에서도 탁월한 접지력과 안정적인 핸들링 성능을 발휘한다.

윤민석 금호타이어 G.마케팅 담당 상무는 “극한의 조건 속에서 펼쳐지는 파이크스 피크 힐 클라임은 금호타이어의 기술력과 고성능 타이어 역량을 전 세계에 입증할 수 있는 이상적인 무대”라며 “앞으로 글로벌 모터스포츠 활동을 강화하고, 고성능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 최근 역대 본부장을 초청해 소통과 지혜를 나누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협 전남본부, 역대 본부장 초청 간담회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등 당부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본부 대강당에서 역대 본부장을 초청해 소통과 지혜를 나누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남농협의 발전을 이끌어온 전임 본부장들의 노고에 감사を 전하고,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농협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환영 인사와 자유 발언, 오찬 순으로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역대 본부장들은 농촌의 고령화와 기후

변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농협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후배 임직원들에게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본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농협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재확인하고,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실천적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 중점산업 중기에 675억원 특례보증

광주은행, 8억원 출연
시·신보금융과 업무협약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북구 빚고을창업스튜디오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이주영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중점산업 창업·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민·관·공의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AI산업, 제조업, 미래차 등 광주시 중점산업 분야의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8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협약 대상 기업에 1년간 연 0.5%의 보증료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재원으로



고병일 광주은행장(오른쪽)이 ‘광주시 중점산업 창업·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가운데), 이주영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총 675억 원의 특례보증대출을 공급하고, 광주시는 2년간 연 2.0%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창업자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상의, 자동차업계 간담회…“인력난·재정 지원 절실”

생산인력 수급 불균형 호소
인건비 부담 완화 등 요청도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들과 함께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상의는 최근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자동차 분야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업계의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뉴런모터스, ㈜부성사프트, ㈜대웅에스엔티 등 현대차·기아의 협력업체 12곳과 광주경제진흥원상생일자리재단, 노사발전재단 등 기업 지원기관들이 함께했다.

회의는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설명, 유관기관 사업 소개 및 기업지원 연계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상의는 최근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자동차 분야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업계의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전문인력 및 청년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꼽았다. 심각한 청년층 유출과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겹치며, 생산현장의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폐지와 홍보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 실질적인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업들은 특히 인건비 부담 완화와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광주상의는 이에 대해 안착지원금, 도약장려금, 공동이용시설 개·보수비, 건강검진비 지원 등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전반을 설명했다. 유관기관들도 청년 및 중장년 구인·구직 알선, 재직자 교육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송대우 기자 sdw0918@gwangnam.co.kr

KT, 광주에 외국인 특화매장 오픈

경기도 안산 이어 전국 두번째 하남대로점

KT 전남전북광역본부는 최근 광주 하남대로에 위치한 외국인 특화매장 KT Global Store (유) 리코아 하남대로점 오픈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 매장은 경기도 안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문을 연 외국인 특화매장으로 정상 영업을 시작하며 지역 외국인 고객을 위한 맞춤형 통신 서비스 뿐 아니라 다국적 상담사가 제공하는 언어상담, 외

국인 대상 항공권 발권 서비스,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행사에는 KT의 외국인 고객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광주은행 외국인금융센터, 베트남 교민회장을 비롯한 지역 외국인 커뮤니티 리더들이 참석해 KT Global Store의 지역 밀착형 운영 방향성을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됐다.

매장에는 내국인 직원 2명, 외국인 직원 6명(베트남 3, 러시아 1, 네팔 1, 필리

핀 1)으로, 내국인 직원은 KT 매장 10년차 이상 베테랑으로 구성됐으며 외국인 직원도 지속 채용 예정이다.

KT Global Store 하남대로점은 서영대학교와 MOU를 통해 유학생(베트남·중국)의 여권을 활용한 개통을 지원하는 가운데 광주대, 호남대 등 지역 대학들을 비롯해 베트남 현지 유학생과도 MOU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철 본부장은 “KT Global Store는 외국인 고객을 위한 통신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KT의 글로벌 전략을 실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대우 기자 sdw0918@

코스피 3000 돌파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20일 전장보다 44.10포인트(1.48%) 오른 3,021.84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8.78포인트(0.29%) 오른 2,986.52로 출발해 보험권 내 등락하다 상승 전환한 뒤 오후폭을 키워 오전 10시 45분께 3,000.46을 기록하며 3,000선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수가 장중 3,000 위로 올라선 것은 지난 2022년 1월 3일(3,010.77) 이후 처음이다.

마감가로는 지난 2021년 12월 28일(3,020.24) 이후 3년 6개월 만에 3,000선에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9.02포인트(1.15%) 오른 791.5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3,000선 위로 올라선 것은 새 정부 정책 기대감·외국인 복귀·관세 불확실성 완화의 3박자가 맞아 떨어진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작년 말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됐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새 정부의 중시 활성화,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박스권 탈출의 원동력이 됐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동부신협, 자산 2000억 돌파

광주동부신협동조함이 자산 2000억 원을 돌파하며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광주동부신협은 최근 본점에서 자산 2000억원 달성 기념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구희상 이사장, 심기훈 전무, 김영하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동부신협은 지역민과 조합원의 꾸준한 신뢰와 참여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다. 지역 밀착형 금융서비스와 조합원 중심의 투명한 운영이 성장 배경으로 꼽힌다.

광주동부신협은 앞으로도 금융서비스 고도화와 함께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확대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상생 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구희상 광주동부신협 이사장은 “자산 2000억원 달성은 조합원과 임직원이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신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로또

3 7 15 16 19 43

Lotto 6/45

로또 1등 6명...당첨금 각 45억8000만원

제117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7, 15, 16, 19, 4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1'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6명으로 45억7667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

치한 2등은 75명으로 각 6102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춘 3등은 3111명으로 14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춘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7438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64만4128명이다.

연합뉴스